



☐ 2020년 통권 제18호

청주시  
CHEONGJU  
CITY  청주시보조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행복누리



코로나 시대를 살며 변화된 복지관 이야기 

# Contents

I 온라인 공동체 구축	01 온라인 부모교육	04
	02 비대면 영상 서비스 제공	06
	03 자기주장대회	09

II 문화활동 : 일상나누기	01 무인도서나눔	13
	02 가족정서지원 ( 원예키트 )	15
	03 슬기로운 집콕생활 가족편	17
	04 슬기로운 집콕생활 직업생활편	19
	05 슬기로운 집콕생활 성인편	21

III 맞춤형 개발지원	01 가족지원 ( 마음방역 희망백신 )	24
	02 설 명절 지원 사랑의 음식꾸러미	26
	03 일상생활 지원 1탄 사랑의 햇김치 나눔	27
	04 일상생활 지원 2탄 건강한 여름나기 희망꾸러미	28
	05 일상생활 지원 3탄 시원한 여름김치 나눔	30
	06 긴급지원 - 재가장애인	32
	07 긴급지원 - 성인발달장애인	34
	08 찾아가는 맞춤형 1 인 평생교육	36
	09 슬기로운 집콕생활 2 탄	38
	10 찾아가는 맞춤형 욕구조사	40

IV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01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사업	43
	02 로컬택트 희망동행	46

V 우리들의 이모저모	48
-------------------	----

VI 코로나-19로 변화된 복지관의 모습	50
------------------------------	----



# 온라인 부모교육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성인권 교육’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20년도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발달장애인부모교육지원사업 ‘성인권 교육’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8월 3주부터 대면 수업 진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지속되면서 복지관 휴관은 연장되었고, 대면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모교육을 연기하게 되었다. 교육을 연기한 후,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가능할까?, 대면 교육 진행 시 위험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경우 어려움은 없을까? 등 부모교육 진행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겼으며, 대안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을 활성화하였고, 프로그램과 교육 등을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부모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해볼까 생각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과연 교육에 대한 집중도와 전달 정도 등 효과적일까를 고민하였고, 담당자로서 온라인 교육에 대해 긍정 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코로나-19는 완화보다는 확산과 지속이 계속되었고, 더이상 교육을 미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방향을 전환하여 계획하게 되었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온라인 부모교육을 계획하기 전, 부모교육을 신청한 보호자와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 강사에게 온라인 교육 진행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과연 온라인 교육에 많은 보호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걱정하며 유선 연락을 통해 보호자 개인에게 모두 확인하였으며,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보호자가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 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교육의 집중도 등으로 걱정하거나 교육을 취소하는 보호자도 있었지만, 부모교육 신청자 16명 중, 14명의 보호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온라인 교육 참여에 의사를 보였다. 강사진들 또한 온라인 교육 시 집중도, 전달력, 보호자와의 소통 제한 등의 어려움을 등의 단점이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보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보이며 온라인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면서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는 자녀들이 보호자가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활동 키트를 준비하여 전달하였으며, 보호자분들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온라인 부모교육 진행 당일, 교육 진행 1시간 전부터 온라인 교육 진행을 준비하였고, 사전 안내 연락을 통해 미리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모든 보호자분들이 어려움 없이 온라인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온라인 교육은 원활하게 준비 및 진행할 수 있었다.

## 03 직원 소감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걱정이 앞섰다. 첫 번째, 보호자가 온라인 교육에 접속하는 과정이 원활할까? 두 번째, 온라인 교육의 집중도는? 전달 정도는 효과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과연 많은 보호자분들이 온라인 교육에 참석할까? 온라인 교육 첫 시간, 약속된 시간이 되기 10분 전부터 한분 한분 입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정각이 되자 교육을 신청한 모든분들이 온라인 교육에 접속하였고, 계획대로 온라인 부모교육이 시작되었다. 영상을 통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하였지만 이내 서로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며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 또는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경우 쉬는 시간과 교육이 끝난 이후 시간까지 화상회의를 종료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보호자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육을 준비한 담당자로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앞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교육 진행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었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았다는 것과 새로운 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 04 결과 평가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이 보호자분들이 시간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주면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에 참여하는 보호자를 볼 수 있었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호자분들이 관심과 재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부모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코로나-19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모교육을 운영해보는 것도 좋은,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다. 바로, 코로나-19로 초반에 부모교육 진행이 연기되면서 교육 일정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강사 일정 조율 등의 어려움으로 결국 회기가 축소되었고 초반에 계획했던 모든 내용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또 부모교육이 운영된다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진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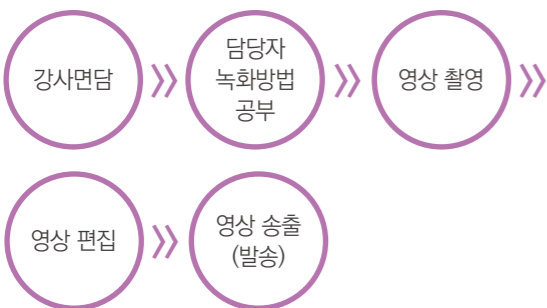
# 비대면 온라인 (영상) 서비스 제공기 촬영 VS 제공 과연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복지관 회원들에게도 가감 없이 다가와 소중한 것들을 앗아갔고, 그에 따라 회원들을 만날 때마다 초기에는 “복지관에 언제 갈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언제 점심 먹을 수 있을까요?” 등을 표현하던 회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 힘들어요, 우울해요”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온라인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점 크게 다가오게 되었고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코로나19 종식 전에는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없는(참여인원 90명) 노래교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1 노래교실 온라인 영상 촬영



- 노래교실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결정되면서 노래교실 강사와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영상촬영은 해 본적이 없지만,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회원들의 위해 한번 도전해 보겠다”며 흔쾌히 참여해 주셨다.

- 담당자 및 강사 모두 영상촬영은 처음이라 어떤 준비를 필요로 하는지 노래교실을 촬영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환경이 어떤것인지 공부해서 서로 논의해 가며 촬영을 진행하였다.

금년도 강사의 첫 인사와 함께 나훈아의 ‘사모곡’을 촬영하는데, 가까이서 · 멀리서 · 왼쪽에서 · 오른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찍은 후 편집을 하였더니 18분짜리 영상이 완성되었다.(촬영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결과물이 생각보다 짧아서 아쉬운 마음)



## 2 #슬기로운 운동생활

(‘슬기로운 집콕생활 - #성인편’의 온라인 버전)

- 복지기관들의 휴관으로 인하여 외부활동은 물론 운동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생긴 만큼, 지속적으로 운동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해서 가정 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방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지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운동영상을 제공하였다.

-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 또 그에따라 개별적인 신체적 기능들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체육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운동영상을 공유하여 본인의 신체적 기능에 맞춰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영상 자료실



## 03 회원소감

영상을 유튜브로 업로드 이후, 회원 70여명에게 문자를 통하여 유튜브 주소 공유 진행, 이후 1차 전화 모니터링은 연령대별로 진행하였으며, 2차로 65세 이상 전화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 ▶ 복지관에서 영상을 보내줘서 재밌게 보았다,
- ▶ 새로운 강사님이 오셨네요. 그런데 영상에서 소음이 들려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 ▶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어서 별로 재미없었어요.
- ▶ 복지관에서는 다른 회원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앞에 나가서 부를 수 있어서 신났는데 핸드폰으로 노래만 들으니 신나지 않는 것 같아요.
- ▶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우울했는데 복지관에서 우리를 잊지않고 영상으로 찍어서 노래를 보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또 듣고 했어요
- ▶ 어머 강사님이 바뀌셨네요. 제가 사모 노래 좋아하는데 잘 들었어요
- ▶ 복지관 소식을 들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회원들의 온라인 영상에 대한 소감은 긍정과 부정이 섞여있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들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텔레비전에 온통 트로트가 나온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회원들이 각자 자신만의 관심분야가 있고 이를 적절하게 찾아낸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것이나, 강사님과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낸 1차 영상은 아쉽지만 복지관 오는 것보다의 효과와 반응을 따라갈 수 없었다.



### 04 직원 소감

코로나바이러스 이제나 저제나 회복될 날을 기다렸지만 점점 확산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제공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대두되는 가운데 영상 촬영에 대한 부담감 또한 커져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었고 회원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보람도 느끼게 되었다.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영상 정보를 파악하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지만, 이것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참 어려웠다. 회원님들 핸드폰에 영상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포함하여 문자를 발송하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참 쉬운 과정이지만, 회원님들이 핸드폰에 낯선 화면을 보고는 그냥 꺼버리셨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약간의 허탈함에 빠져있었던것도 같다.

이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더러도, 온택트 시대에 발맞춰 우리 회원들에게도 스마트한 세상에 함께 하기 위하여 담당자는 노래교실 운영에서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온라인 영상 송출에서 또 하나 어려웠던 점은 회원들이 영상시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부담'이라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할 수 없는 것을 찾아 보는 게 힘든 상황에서 고령이러서 혹은 장애인이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배려하고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세계(급변하는 디지털세상)로 입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05 결과평가

현재 상황 속에서 실시간 교육이 아닌 녹화영상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할 수도 그렇다고 다른 회원들의 반응을 함께 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온라인 소통방법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 우리 회원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비록 이번 노래교실 온라인 강좌에서 맛본 쓴맛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자기주장대회 발달장애인 자기 주장대회 ‘나를 외치다!’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자기주장대회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장애인식개선과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사업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대회를 진행하기 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되었다.

지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 사전홍보 진행 후 유관기관에 전화 모니터링을 통한 현황조사를 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이 휴관으로 인해 자기주장대회 준비 및 지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각 가정에서 준비할 경우에도 보호자가 지도하는데 어려움,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팀 회의를 통해 자기주장대회 진행방식에 대해 재논의 하였고 논의 결과 가정에서 준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영상 제출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자 Zoom을 활용한 랜선방식으로 재계획하였으며 7월 17일 예정되어 있던 날짜를 7월 23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1 사전 준비

- 변경된 계획과 일정을 다시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홍보, 안내하였고 사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다. 홍보와 동시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김형완 센터장, 충북재활원

요셉의 집 신정희 원장)에게 심사의뢰를 요청하였고 대회 당일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 사전심사의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심사위원들이 모이지 않고 참여자의 제출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한 결과 비공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후 비공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한 후 심사위원을 초대하여 참여자 12명에 대한 영상, 심사기준표를 공유하여 원활한 비대면 사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비공개 네이버 밴드의 경우 대회가 끝난 후 삭제 진행.)

- 참여자의 사전영상 제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개인 및 기관에서 영상편집 후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직접 영상을 편집하고 압축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이메일 발송이 어려울 경우 참여자의 부모님이 직접 기관에 방문 또는 SNS를 통해 영상을 제출하였고 영상편집의 경우 자기주장대회 담당자가 직접 영상을 편집하였다. 제출된 영상의 경우 높은 전달력을 위해 영상마다 추가로 자막을 달아주었다.



- 자기주장 영상과 함께 발표원고,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초상권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서류도 같이 접수하여 영상 활용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을 수 있었다.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자기주장대회를 준비하면서 팀 회의를 통해 업무 분장을 진행하였고 Zoom과 Google Meet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 자료조사 및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사전 테스트를 하면서 더 편리하다고 판단된 Zoom을 이용해 대회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차례 사전 리허설을 진행했다. 리허설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시나리오를 수정했고 참여자 및 심사위원이 보기 편리하게 PPT를 제작하여 화면에 띄우기도 했고 Zoom 접속방법 안내지

(스마트폰 버전, PC 버전)를 만들어 참여자, 보호자, 기관에 직접 안내를 하기도 했다.

- 자체 리허설 외에도 대회 3일 전에는 관계자, 보호자, 참가자가 직접 참여하여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리허설을 통해 가장 중요한 소통이 원활한지, 온라인 접속에 어려움은 없는지,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였다. 참여자 모두 신기해하기도 하고 화면으로나마 오랜만에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반가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 이러한 사전과정을 거친 후 5곳의 유관기관(음성군장애인복지관, 충북부모연대 청주시지회,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라우렌시오빌)에서 총 12명의 참가자가 직접 참여 신청하였다.

**2 자기주장대회 '나를 외치대' 진행**

- 랜선 자기주장대회의 심사기준은 발표내용(20점), 표현력(20점), 심사위원 가산점(10점)으로 구성하여 발표내용과 표현력 점수는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가산점은 대회 당일 참여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종합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동점 시 1순위는 표현력 점수, 2순위는 장애 등급(장애 정도)을 통해 순위를 정하고자 하였다.



- 행사 진행은 개회식, 심사기준 및 방법 안내, 발달장애 인권리선언문 낭독, 발표 영상 감상(총 12명), 심사평 및 질의응답, 홍보 영상, 폐회식 순으로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동안 대회가 진행되었다.

- 발표 영상 감상 전 모두가 발달장애인권리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통해 더 의미있게 시작할 수 있었다.

- 단상에 서서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자기주장을 펼치는 참여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참여자,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꿈을 펼치는 참여자, 장애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의견을 펼치는 참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실시간으로 진행된 대회 종료 후 바로 다음 날 가정과 기관에 방문하여 상장 및 상금을 직접 전달하였고 랜선 자기주장대회에 참여하면서 어땠는지 참여 후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03 회원 소감**

**< 담당자 및 보호자의 참여 후 소감 >**

- 복지관에서 동영상 발표하는 것을 재미있게 보았고 2등(최우수상)이 되어 기뻐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고 엄마도 기뻐하셨습니다.(유\*영)

- 동영상을 찍을 때는 많이 겁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찍은 영상을 보니 기분이 좋고 부듯했습니다. 꿈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참가하고 싶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정\*국)

- 대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타에서 동상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대상이 더 좋은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랑 친구 엄마들이 모두 저한테 축하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

았습니다. 일요일날 친구들한테 한턱 쓰기로 했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구\*권)

- 우수상을 받아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국)

- 상을 타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참석하고 싶습니다.(심\*도)

-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모두에게 감사합니다.(최\*원)

-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윤\*훈)

- 자기주장 발표대회 영상을 보면서 친구가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춤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잘 해서 영상으로 보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기쁜 마음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팀장님이 발표 내용을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연습하고 집에서 연습했는데 잘해서 또 눈물이 났고 상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관에 피자도 쓰고 싶고 팀장님, 선생님들 모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박\*현)

- 대회 참여하면서 기뻐고 행복했습니다. 영상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신기했고 다른 참여자들의 영상도 재미있었습니다.(김\*현)

- 상이랑 상금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참여한 친구들의 발표를 보니 잘하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들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나의 이야기를 영상촬영하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복지관에 빨리 가서 친구들도 보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습니다.(이\*지)

- 랜선으로 발표하는 게 신기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상금으로 동생 책을 사고 다른 것도 사려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나가고 싶습니다.(김\*희)

- 자기주장대회에 나가서 재미있었고 다시 한 번 더 나가고 싶습니다.(정\*형)



### 〈 담당자 및 보호자의 참여 후 소감 〉

-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낯선 사람 또는 사람이 많으면 말을 잘 못하는데 영상촬영 및 랜선으로 진행되어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기관에서 따로 자막을 달아주어서 영상을 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행 시간이 조금 길어서 힘들기도 했습니다.(구\*권 어머니)
- 다음에 또 기회가 만들어지고 코로나가 끝이 나면 무대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윤\*훈 어머니)
-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라도 다른 친구들 모습도 보고 다른 곳의 복지관 모습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현 어머니)
- 실제 무대에 서면 되게 떨려 하는데 랜선으로 진행하게 되어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우렌시오빌 담당자)

### 04 직원 소감

- 코로나로 인해 지역사회 속 다양한 활동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빠르게 랜선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전 과정이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다.
- 한 참여자의 부모님은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화면으로 자녀가 자기주장대회에 참여하는 영상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이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회 종료 후 랜선으로 진행하게 되어 이렇게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관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많은 참여자, 보호자가 색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즐겁고 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담당자로서 매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 05 결과평가

- 코로나로 인해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접근한다는 점,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 처음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 테스트 및 사전 리허설이 진행되었으며 리허설을 통해 장소 및 보완사항에 대해 점검할 수 있었다.
- 자기주장대회 총 12명의 참여자가 신청하였으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유관기관 4곳(음성군장애인복지관, 충북부모연대 청주시지회,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라우렌시오빌)에서 신청하였다.
- 팀 내 업무분장을 통해 상장 및 상금전달 관련하여 행사 다음 날 각 참여자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다.
- 랜선 자기주장대회 진행 시 유관기관 및 보호자가 편집하여 영상을 보내준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편집되지 않은 채로 영상을 보내 담당자가 영상편집 및 자막을 추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추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심사기준점수에 자막편집과 관련된 사항도 추가하여 참여자의 영상 및 자막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개인의 개성을 담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 사전 계획과 다르게 랜선방식으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준비시간이 다소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USB 마이크, 캠, 스피커, ZOOM 유료버전)이 없어 직원 개인 물품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추후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코로나-19를 대비하여 기본 교육 장비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무인 도서 나눔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후원 받은 도서들을 활용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였고 이에 많은 친구들이 복지관을 방문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복지관이 휴관되었고 복지관의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도서관 이용도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속에서 가정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서, 문화적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았다. 때마침 복지관에서는 아직 비치하지 않은 많은 후원도서들이 존재했고 그 도서들은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기만 하는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나눔을 해보는건 어떠할지 생각해 보고 그를 바탕으로 계속 고민한 결과 현 상황에 맞게 무인으로 나눔을 하기로 결정하여 진행해 보았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관내 보유중이던 후원도서들 중 아동청소년들이 읽기 적절한 도서 356권을 선정하여 잘 준비·진행하였고 네이버 밴드에 가입된 261명의 회원들에게 안내문 게시를 통해 홍보하였다. 선정된 도서를 소독하고 정리한 후, 복지관 로비 앞에 전시하여 복지관 회원 누구나 살펴보고 간단한 기록(아동청소년 이름, 보호자 이름, 가져가는 책의 권수)만 남기고 가져갈 수 있게 배치해두었다.

### 03 회원 소감

▶ 코로나19로 이전 책은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생활의 도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는 전처럼 쉽게 접할 수 없게 책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책을 구입하여 읽어 볼 순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도 많은 부담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도서 나눔이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 04 결과평가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과 대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현 상황에서 좋은 취지로 후원해주신 다양한 서적을 어떻게 필요가정에 전달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한 결과 외부에 무인 서적 나눔의 공간을 만들어 회원분들과 공유하게 되었고, 많은 가정은 아니지만, 아동서적을 필요로 하고, 관심있어 하는 가정에서 내방하여 필요한 책을 받아갈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에게 필요 물품을 제공하고,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시도해 봄으로써 후원물품을 잘 전달할 수 있었고, 회원들도 아이들과 내방하여 필요 서적을 수령하며 만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가족 정서지원 원예키트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지난 3월 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신청한 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가족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 놀이키트를 지원하였다. 가정 놀이키트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다양한 집콕 놀이 활동 지원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어 가정 놀이키트 2차 지원에 대한 아이템을 고민하게 되었다. 때마침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함께 힘을 모아 설립한 사회적기업 '해바라기의 꿈'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및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청소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돕기를 목적으로 복지관에 원예 키트를 후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원예 키트 전달을 계획하게 되었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및 대기자 52명을 대상으로 원예 키트를 후원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원예키트 수령을 희망하는 43가정에 지원하였다. 원예키트 전달 방법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수령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하여 비대면으로 전달하였으며, 가족이 소통하며 쉽게 원예 활동할 수 있도록 키트 안에 모종과 화분, 화분 심기 및 키우기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 03 회원 소감

“키트 감사드려요.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구성도 알차구요^^ 어제한 패랭이 화분 이쁘지요? 감사합니다.”

▶ 홍○정님 보호자

“화분에 심었어요^^ 해바라기는 더 큰화분에 심었습니다. 감사해요!”

▶ 김○찬님 보호자

“○주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주 동생이 혼자 화분에 심었네요. 대신 ○주는 집베란다에서 남은 화분 휴가지고 열심히 놉니다. 그리고 저번에 주신 화분에 새싹이 났어요! 덕분에 즐거운 집콕 생활이네요~ 다시 한번 복지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다들 힘들지만 즐거운 집콕 즐기세요!”

▶ 이○주 보호자

### 04 직원 소감 및 결과평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외부활동 및 문화생활에 제한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뜻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원예키트를 후원해주신 사회적기업 ‘해바라기의 꿈’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복지관 회원과 가족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05 결과평가

43명의 아동·청소년 가정에게 원예키트를 전달하였고, 복지관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제공과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확인하면서 원예키트 전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

## 슬기로운 집콕생활 가족편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계속되는 학교 개학연기와 지역사회 이용시설 무기한 휴관에 따라 가정 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가족의 정서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정서적 지원 방법을 고민하던 중,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즐거운 집콕놀이 활동을 제공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슬기로운 집콕생활” 가정 놀이키트를 계획하게 되었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가정 놀이키트 “슬기로운 집콕생활” 물품은 2020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용자 및 대기자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초·중·고등부의 연령 및 성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고민하며 키트를 구성하였다.

키트 대상자에게는 유선연락을 통해 “슬기로운 집콕생활” 놀이키트 지원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 놀이키트를 전달하였다.

“슬기로운 집콕생활” 가정 놀이키트를 수령한 가족들은 놀이키트 활동 후 복지관 네이버 밴드에 소감과 후기를 등록하면서 재미있는 집콕놀이, 스트레스 해소 등의 높은 만족감을 이야기 하였고, 구글 만족도 설문 조사를 통해 가정 놀이키트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해볼 수 있었다.



### 03 회원 소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놀이키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주님 보호자

“슬기로운 집콕생활~ 모두 만든 후에 올리면 너무 시간이 흐를 것 같아 쟈나게 심은 화분만 올려요~♡ 항상 마음 써주시는 복지관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복님 보호자

“코로나로 인해 모두에게 힘든 이 시기에 잊어버리시지 않고 아이들을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루한 시간을 아이들과 즐겁게 보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 이○주님 보호자

“○성이는 요리활동을 좋아해요. 활동보다는 먹는 걸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요ㅎㅎ 아이들 걱정해주시고 살뜰히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일상으로 얼른 복귀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 이○성님 보호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 답답했는데 복지관에서 주신 키트 덕분에 재밌게 체험했습니다. 감사드려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 이○성님 보호자

“생각지도 못한 놀이키트에 감사했습니다. 소소하게 아이와 시간도 가지고 잘 이용했습니다.

▶ 김○우님 보호자

### 04 직원 소감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가정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고민 끝에 가정 놀이키트를 계획하였고, 가정 놀이키트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휴식과 힐링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였다.

이러한 우리의 바람이 전해졌는지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사진과 소감을 복지관 네이버 밴드를 통해 공유하면서 “슬기로운 집콕생활” 놀이키트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아이들이 웃는 사진을 보며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힘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 05 결과평가

가정 놀이키트의 경우 20년도 프로그램을 신청한 총 52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전달되었다.

가정 놀이키트의 평가로는 복지관 네이버 밴드에 자녀의 활동사진 및 소감 공유와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댓글과 표정 스티커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처음 계획 시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키트로 구성하여 계획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녀 혼자 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라 아쉬움이 남아있다.

이에 향후 가정 놀이키트 계획 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구성하여 가족 구성원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 슬기로운 집콕생활 직업생활편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사회 이용시설 무기한 휴관에 따라 직업훈련생들의 직업적 훈련 유지 및 가정 내 정서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직업적 훈련 유지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손 기능 훈련을 유지할 수 있는 공예물품, 원예 물품의 지원을 통해 미세 손기능 및 직무 훈련 등을 가정 내에서 진행하며 개인별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정서지원 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TV시청 외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정서지원 및 여가시간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진행하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1차: 새싹 기르기, 전통 문양 등 만들기, 3D 구슬퍼즐, 스콜라스 미니팝

- 총 25명의 직업훈련생에게 키트 제공
- 공예, 원예, 정서지원 물품들을 제공하여 진행 배경과 같이 직업적 기능 유지 및 정서지원, 여가시간 활용에 초점을 두어 키트 물품에 대한 구성 진행하였다.

#### 2차: 에코백 만들기, 화초 심기

- 총 27명의 직업훈련생에게 키트 제공
- 원예, 공예 물품들로 키트 구성하였으며 복지관 개관 시 개인 물품들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에코백 만들기 지원하였다. 화초 심기는 집안의 공기정화를 위한 공기정화 식물로 구성하였으며 손 쉽게 기를 수 있는 식물로 구성 하였다.

#### 3차: 명화 퍼즐, 곡물강정만들기

- 총 23명의 직업훈련생에게 키트 제공
- 명화 퍼즐을 통한 사물 인식 및 손기능 향상 활동 제공하였으며, 다가올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곡물강정 만들기를 통해 명절의 정과 나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총 23명 중 10명은 키트 전달하였고 13가정은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 진행하였다.
- 방문 프로그램 진행 전 담당자가 직접 활동을 통해 곡물강정 만들기 활동의 순서와 재료의 적당량 확인 및 수정사항을 확인하여 실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보완하였다. (올리고당, 설탕의 양을 줄이고 포장시 세밀한 스티커 부착과 포장지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포장지 교체하여 준비하였다.)
- 보호자 사전 안내를 통해 준비물 준비와 방문시간을 조율하여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였다.
- 곡물강정 만들기, 퍼즐 맞추기 활동시 대부분 참여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담당자와 개별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03 회원 소감

-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무려 한 시간을 달렘은 물론 강정만들기 활동이 가정내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인지 몰랐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아쉽고, 다음에도 또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 04 직원 소감

- 복지관에서 훈련시 요리활동이 진행되긴 하나 가정내 활동이 진행되며 다양한 활동으로 곡물강정 만들기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호자와 참여자간의 관계형성이나 복지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복지관 훈련시 참여자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담당자와 참여자 개별 1:1로 진행되며 보다 상세하게 모든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좋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직접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본인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었다.

### 05 결과평가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복지관 휴관이 장기화되며 참여자 대부분 외부활동없이 가정내 지내며 겪고 있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직업키트를 1, 2차 지원하였고 3차 키트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참여자 가정내 방문하여 1:1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참여자 대부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내 1:1 대면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담당자와의 개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일상에 잠시나마 활력을 주는 기회로 제공되었다. 곡물강정 만들기 활동시 적당량을 계량하거나 퍼즐맞추기 활동시 모양에 맞춰 완성하며 참여자의 인지기능, 손기능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 슬기로운 집콕생활 성인편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하여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 권고로 인하여 복지관 휴관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다. 본 복지관뿐만 아니라 청주시의 복지시설들이 잇따라 휴관에 들어가면서 회원들의 외부활동의 장소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었다.

회원의 대다수가 고령으로 구성되어 코로나19에 대한 전염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가정 내에서 무료함을 표현하며 복지관에 가고싶다고 표현하는 회원이 점차 증가하여 '복지관 대신 가정에서 프로그램을 스스로 진행해보고, 복지관 휴관해제 이후 서로 서로 소감을 나눠보자!'라는 주제로 회원들의 선호도 및 신청 프로그램 영역을 고려하여 대체프로그램 키트를 준비하였다.

외부활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잠시나마 즐거움과 '코로나19'라는 걱정을 잊기를 바라며 또한, 어서 빨리 복지관에 가서 만나고 싶다는 열렬한 회원님들의 가정내 평생교육지원 독려 및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한 우울 예방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1 대체 프로그램 준비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영역 중 회원들의 가장 많은 관심도와 참여도를 보이는 분야 중, 가정 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 생활스포츠 영역을 선정하여 키트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중 비장애인을 제외(70세 이상은 포함)한 인원을 선발하여 키트를 전달하였다. 이때 가족세대인 경우 가족들간에 키트를 통한 대화 진행 및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1세대 기준 1개 키트를 지원하였다.

#### 2 가정 내 개별 활동 지원을 위한 눈높이 설명서 제작

다양한 장애유형과 고령비장애인들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를 제작하였다.

각 키트별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순서와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들을 기재하였으며, 그 과정별로 직접 담당자들이 시연하면서 그림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며, 글로 설명하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차 검수하면서 제작사진 몇 장과 순서에 대한 몇 글자였지만, 회원님들이 설명서 보시고 한 번이라도 미소지으시길 바라며, 예쁘게 키트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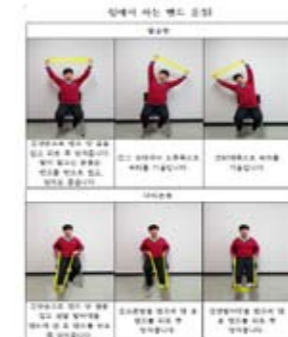
'슬기로운 집콕생활 (# 성인편)' 사진·그림자료를 활용한 사용설명서



# 슬기로운 식물 생활



# 슬기로운 문화 생활



# 슬기로운 운동 생활



# 슬기로운 반려식물

‘슬기로운 집콕생활 (# 성인편)’ 키트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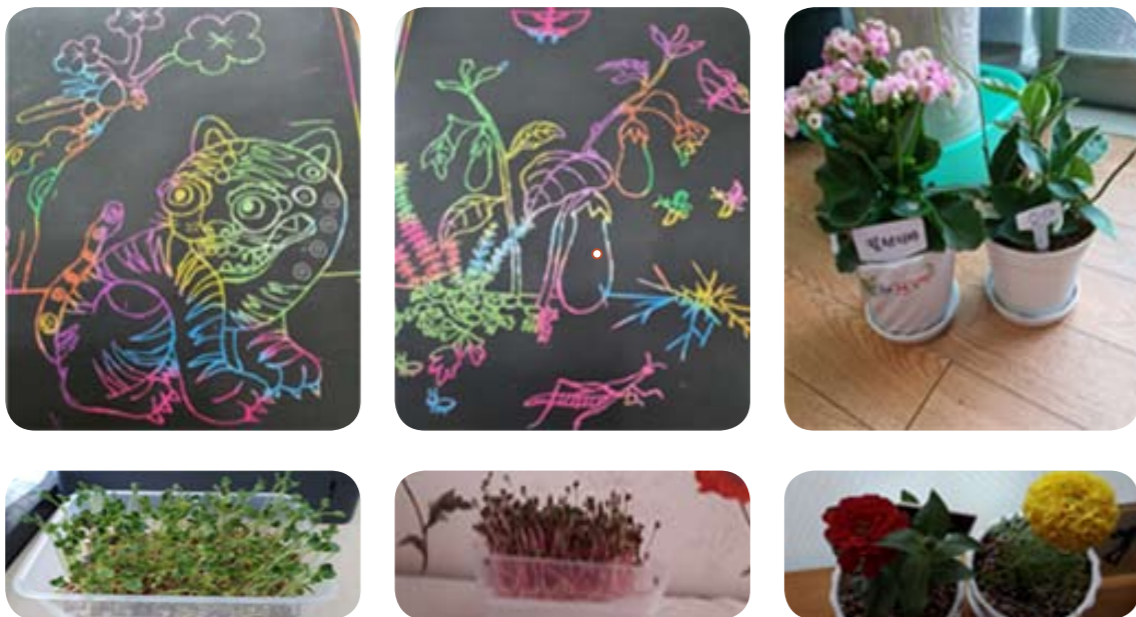
③ ‘슬기로운 집콕생활(#성인편)’ 전달을 위한 회원 개별 전화연락 및 가정방문

지역별로 나누어 전체 직원들이 유선으로 키트전달 안내와 안부를 여쭙고 가정에 방문하여 회원님들의 건강상태와 특이사항을 확인하였다.

개별 가정방문을 통한 키트전달 및 안부확인



회원님들의 활동 후기 - ‘슬기로운 집콕생활 (# 성인편)’ / 식물생활, 문화생활, 반려식물편



03 회원 소감

“손주들과 새싹을 함께 키워서 먹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키트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 손○환 회원님

“선생님 숙제 다했어요. 재미있네요. 고맙습니다. 처음 키운 새싹은 맛있었는데, 두 번째꺼는 너무 써!”

▶ 우○제 회원님

“우리집 특성상 보내주신 꽃이 참 잘커요. 새싹도 키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키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 변○자 회원님

“보내주신 거는 너무 좋는데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힘들더라고요.”

▶ 박○성 회원님

“스크래치 페이퍼를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 완성해서 복지관에 전시 안하나요? 여릴 때가 생각나서 좋았어요. 새싹은 아내와 함께 키우면서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을 보니 기쁘더라고요.”

▶ 신○식 회원님

가져다 주신 새싹 키워서 먹어보니 너무 좋아서 씨앗 따로 사다가 더 키워 먹고 있어요. 통은 재활용이 가능해서 계속 사용 하고 있어요.”

▶ 김○경 회원님

04 직원 소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적인 생활’, ‘마스크 없는 생활’의 소중함을 우리는 새삼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 10명 중 7명 꼴로 일상속에서 가끔 불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복지관을 이용하여 문화생활 하시던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로 느끼실 답답함과 우울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자 ‘슬기로운 집콕생활’ 키트를 준비하게 되었다. 가정에서 직접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새싹키트와 스크래치 페이퍼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밴드를 준비하여 회원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시고 희망의 새싹을 키우시기를 바라였다.

다행히 회원님들이 직접 키워보시고 그림을 완성해 보시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안부 전화 시 재미있었다는 후기를 남겨주셨다. 이후에 원예키트 준비하여 2차 배송해 드렸고, 식물을 키우시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05 결과평가

회원님들의 소감은 긍정적이었으며 이외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많은 회원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지만, 손재주가 없어서 힘들었다는 분들이 있으므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은 생각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복지 업무 속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대면이 아니어도 회원님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영상과 키트 배송을 통해 지속적인 취미 개발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 가족지원 ‘마음방역 희망 백신’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우울감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게다가, 역대 최장 기간 장마까지 겹치면서 답답함을 호소(장마블루)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복지관 회원(장애인) 대상으로 긴급지원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답답함을 표현하는 회원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회원과 가족이 함께 소그룹 심리심리 활동을 운영을 계획하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모니터링 상담 중 심리적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 된 회원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상담 후 회원에 대한 개별 맞춤 활동을 계획하고 사업논의가 진행되었다.
- 심리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및 고령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1차 2그룹, 2차 4그룹을 시작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 가정방문을 통하여 심리프로그램, 심리방역 키트 제공으로 가정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 활동 및 마음 돌봄 모니터링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 03 회원 소감

‘잘해낼줄 알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가족과 함께 활동을 끝까지 잘 참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음○○

‘우리가 있잖아요!힘내요!’ 가족에게 코로나-19로 복지관에 가지 못하지만 함께 이겨내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사에게도 ‘당신은 정말 성실하네요’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정○○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 만날 울고 창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고 다가오니 ‘제마음에도 기쁨과 희망이 생겨요’

▶ 심○○



## 04 직원 소감

코로나-19로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비대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회원에게 심리적 우울감을 완화하도록 대면사업을 통한 심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안전을 확보하며, 소그룹으로 운영하면서 함께 한다는 자체로도 상호간의 마음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 05 결과평가

- 코로나-19로 복지관에서는 비대면 방법으로 방문, 전화 등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제한으로 우울감을 표현하는 회원에 대하여 정보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 거리를 두지만 마음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느꼈고 가장 좋은 사업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가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설 명절 지원 ‘사랑의 음식꾸러미’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의 왕래가 적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설 명절 음식을 요리하여 드시기 어려운 가정으로 명절의 기분을 미리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계획하게 되었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30가정에 음식꾸러미를 지원하였다.
- 가정에서 쉽게 떡국을 끓여드릴 수 있도록 떡국재료(떡, 만두, 고명 3종, 사골국물)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반찬(장조림)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 가정방문을 통하여 다가오는 설 명절 인사(새해 인사) 및 근황 확인을 통해 정서적 지원 진행하여 당사자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03 회원 소감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미리 느끼실 수 있어서 좋았고, 혼자 지내시며 주변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정서적 외로움을 느꼈는데,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 04 직원 소감

- 설 명절을 맞이하여 평소 가족의 왕래가 별로 없어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가정에 방문, 음식 꾸러미 지원 및 다가오는 설 명절 인사(새해 인사)를 드리니 따뜻한 정을 느끼실 수 있어 당사자 분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 지원 품목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꾸러미여서 만족감이 더 높으셨던 것으로 사료 되었다. 당사자 분들의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매우 보람을 느꼈다.

## 05 결과평가

- 평소 혼자 계시며 찾아오는 가족이 별로 없는 가정이 많아 설 명절 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며 음식 꾸러미를 지원하니 당사자분들의 만족감이 높았다.
- 설 명절 기분을 미리 느끼실 수 있었고, 따뜻한 정을 나눔으로써 정서적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음식의 경우 대부분 선호하는 음식으로 구성, 부드럽게 조리하였고, 설 명절을 느끼실 수 있도록 떡국재료 준비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눠 먹겠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 지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되었다.



# 일상생활지원 1 탄

# ‘봄 내음 물씬! 사랑의 핫김치 나눔’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경제적 어려움, 요리의 어려움, 식자재 구입의 어려움 등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봄에 즐겨 먹을 수 있는 핫김치 나눔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을 계획하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핫김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15가정에게 핫김치 등 반찬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 열갈이열무김치, 배추김치, 파김치, 깻잎장아찌, 장조림 총 5종을 1세트로 구성하여 1가정당 1세트씩 지원
- 식품 지원 시 가정방문을 통하여 당사자 가정에 대한 안부 확인을 진행하였고, 안부확인 시 중점을 두고 확인 및 상담해야 할 부분을 영역별사례회의를 통해 사전 논의하여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 시 상담 진행

## 03 회원 소감

- 배추김치 외 다양한 종류의 김치, 장조림 등 밑반찬이 함께 구비되어 있어 만족한다고 표현하였다. 대부분 조리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 밑반찬 지원에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 집에 김치가 없거나 신 김치만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김치를 주어 감사하다는 의견 있었다.
- 집에서 주로 배추김치만 먹었는데, 파김치가 맛있어서 반찬으로 잘 먹었다는 의견 있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활동을 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어 감사하다는 의견 있었다.

## 04 직원 소감

- 봄철 입맛을 돋우는 핫김치 지원에 대한 당사자분들의 만족감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양한 김치의 종류, 밑반찬을 구성하여 만족감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식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가정에게 일상생활지원으로 식품 지원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사료되었다.

## 05 결과평가

- 봄철 입맛을 돋우는 핫김치 및 영양가 있는 밑반찬을 구성하여 경제적 어려움, 요리의 어려움, 식자재 구입의 어려움 등 부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가정에 식품 지원을 함으로써 당사자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 되었다.





# 일상생활지원 2 탄

## ‘건강한 여름나기 희망꾸러미’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장애인 가정에 여름이불을 지원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을 계획하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무더운 여름철 여름이불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30가정에 지원
- 1가정당 여름이불 및 베개 1세트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안상점에서 여름이불 구입



### 03 회원 소감

- 여름이불이 따로 없어서 바닥에 까는 이불만 사용했었는데, 여름이불을 받아 여름에도 시원하게 이불을 덮고 잘 수 있게 되어 좋다고 표현하였다.
- 평소에 사용하던 이불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는데, 이번 여름 깨끗한 새 여름이불이 있어 기분이 매우 좋다고 표현하였다.
- 이불을 세탁하기가 힘든데, 이번에 지원된 여름이불 소재가 세탁 후 빨리 마르는 소재라 가정에서 이불세탁 하는데 충분히 도움될 것 같다는 의견 있었다.
- 몸이 불편해서 이불 빨래가 어려워 이불 및 베개가 까맣게 변했는데, 이번에 겨울이불을 거둬내고 청소 후에 깨끗한 새 여름이불로 교체하여 사용하겠다고 표현하였다.
- 이불 소재가 시원하고, 가볍고, 부드러워 매우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 침대에 대부분 누워만 계시는 가정의 경우 겨울이불 한 개밖에 없었는데, 시원한 여름이불이 생겨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일어서는게 힘들어 이불세탁을 잘 못하는데, 이번 여름이불을 통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불을 교체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 04 직원 소감

- 생활형편이 어려워 한여름에도 낡고 두꺼운 이불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 여름이불을 지원함으로써 여름이불로 교체하여 사용 할 수 있어 당사자 가정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 대부분 여름이불 소재가 시원하고, 가볍고, 부드러워 만족도가 높았으며, 세탁이 용이하고 변형이 없는 소재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하여 당사자 가정에서 보다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지역 전통시장인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여름이불 및 베개를 구입, 시장상인회와의 미팅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사료되었다.

### 05 결과평가

- 생활형편이 어렵고, 이불세탁이 어려워 이불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시원한 소재의 여름이불을 지원함으로써 여름이불 교체 및 무더운 여름 시원한 여름이불로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었다.
-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여 청주육거리종합시장 상점에서 여름이불을 구입하였고, 청주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와 추후 ‘희망동행’ 협약 체결 진행되었다.



# 일상생활지원 3탄

##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여름김치 나눔’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경제적 어려움, 요리의 어려움, 식자재 구입 등 부식수급의 어려움이 있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여름김치를 나눔으로써 일상생활지원을 계획하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여름김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30가정에 지원
- 1가정당 열무물김치 및 백김치 1세트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동행’ 협약기관인 청주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청주육거리종합시장 안 반찬가게에서 여름김치 구입



### 03 회원 소감

- 맵지 않고, 부드럽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열무물김치와 백김치를 지원받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겠다고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 여름김치의 양을 넉넉하게 구성하여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대부분의 가정이 배추김치가 거의 소진될 시기인데, 시기 적절하게 여름김치를 지원 받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열무물김치국수를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현해주셨다.
- 고령으로 김치를 담그기가 어려운데, 푸짐하게 김치를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의견을 표현해주셨다.

### 04 직원 소감

- 각 가정의 김장김치가 대부분 소진될 시기였는데, 시기 적절하게 여름김치를 지원하여 당사자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 여름철 누구나 부담없이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열무물김치 및 백김치로 지원식품을 구성하여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 되었다. 열무물김치의 경우 국수를 만들어 드셔도 되고 여름철 활용도가 높아 만족도가 높았다.
- 1박스당 약 10kg의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분들이 여름철 영양가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각 담당 사회복지사가 힘써 지원하여 보람있고, 의미가 컸다고 사료되었다.

### 05 결과평가

- 고령으로 김치를 담그기가 어려운 가정이 많아 이번 여름 김치 지원에 대한 당사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부담없이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여름김치 종류였고, 양이 넉넉하여 당사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 되었다. 각 가정의 김장김치가 대부분 소진될 시기여서 시기적절하게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사료 되었다.





# 긴급지원 - 재가장애인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코로나-19로 청주시는 장애인복지관 휴관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긴급 휴관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회원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 2020.02.24.(월)~03.27(금) 동안 총 1,841명(실인원 734명)에게 전화 상담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3,764명(2020.01.01.~02.21 기준) 하루 평균 107명의 회원이 점심식사를 하였다. 또한 가정 안에서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회원은 복지관에서 가장 영양 높은 한끼 식사를 섭취하는 회원도 있었다.

복지관 휴관으로 전화모니터링이 즉시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결식우려 회원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발생되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체식 지원되고 있으며, 내부지원 외에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 내부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개별 수칙이 담긴 안내자료와 함께 가정 안에서 간편하게 조리 가능한 레트로 식품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휴관이 장기화 되면서 영양가 있는 식사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더워지는 날씨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필요도 발생되었다. 이에 반찬을 직접 조리하여 용기에 담아 보냉백과 아이스팩에 담아 안전하게 전달하였다.



### < 외부지원 >

지역사회 내 외부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긴급지원, 긴급물품 신청을 통하여 선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 진행되었다. 간편식품, 건강음료, 온누리상품권, 마스크 항목으로 지원 신청하여 연계되었다.

- 총 4회, 97명에서 서비스 진행



## 03 회원 소감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세대로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지만 수급비로 식사 해결이 빠듯한 상황에서 복지관에서 주는 반찬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전화로 얘기를 나누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너무 감사합니다.”

## 04 직원 소감

- 코로나-19로 사회관계 단절은 복지관 회원이 심리적 우울감, 건강악화 등의 어려움이 관찰되었다. 결식우려가 있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비대면으로 만나거나 짧은 시간 대면하는 시간이지만 전달을 위해 전화로 연락하는 과정 안에서 회원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소중하고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또한, 전달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좋아하는 반찬, 영양소 섭취를 고민하며 메뉴를 구성하고 대면하기 어렵지만 전화, 문자로 소통하며, 복지관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고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을때 사회복지사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 05 결과평가

- 긴급 지원을 코로나로 결식 우려가 있는 회원, 경제적 손실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현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화 모니터링을 통하여 병원에 입원이 확인된 회원, 코로나-19로 사회적 활동으로 우울감을 표현하는 회원 등 각자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반찬은 간편식 식품에서 조리 반찬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며, 기온이 점점 오르는 날씨에 대비하여 당일조리 음식, 보냉백과 아이스팩으로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 긴급지원 - 성인발달장애인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복지관 휴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내 어려움이 파악되었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함은 물론 이용자의 직업적응을 위한 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코로나19' 전염예방을 위한 청주시의 복지관 개관 1~3 단계별 지침에 따라 직업훈련 서비스 프로그램은 2단계 지침(5명)의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하였다.

날 짜	일정내용
07월 27일 ~ 31일(5일간)	※ 직업훈련 이용자의 보호자 수요조사 실시 - 2단계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시 소수인원(5명) 진행 예정 - 맞벌이 가정, 가정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우선 대상임을 안내 - 08월 3일(월)~ 복지관 전면 개관시 까지 프로그램 진행됨을 안내 - 맞벌이 가정 13가정 중 총 7명 신청
07월 29일 ~ 31일(3일간)	※ 프로그램실 준비 - 프로그램실(책상,의자 등)소독 및 비말차단을 위해 1인 책상으로 교체하여 가림막 설치 완료 - 가림막 설치시 안전을 위해 마스크테이프 작업완료 ※ 프로그램 사전준비 - 오전, 오후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의 담당자별 프로그램 준비
08월 03일 ~ 19일(13일간)	※ 직업훈련 이용자의 보호자 수요조사 실시 - 09:30~12:00 (3명) - 13:00~16:00 (3명) - 자립·사회생활, 직업준비 및 수행, 작업활동 등 영역별 프로그램 진행함. - 08/20 ~ '코로나19' 재확산됨에 따라 긴급지원 프로그램 종료됨을 보호자에게 유선안내
08월 20일 ~ 21일(2일간)	*프로그램 진행 - 13:00~16:00 (1명) - '코로나19' 재확산됨에 따라 긴급지원 종료(08/19)되었으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2일간 프로그램 진행
08월 24일 ~	※ 프로그램 종료 - '코로나19' 재확산됨에 따라 긴급지원 프로그램 종료

## 03 회원 소감

- 프로그램 참여자 대부분 맞벌이 가정으로 가정내 외부활동 없이 지내며 대부분 낮동안 tv시청과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심심했었으나 복지관 출근해서 좋아요~
- 다른 친구들이 보고 싶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요...
- 동료들과 생일파티를 같이 못해 복지관 개관하면 같이 생일파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 04 직원 소감

- 안부확인을 위해 유선상담을 하거나 직업키트 지원을 위해 방문시 참여자의 근황을 확인하였으나 일부이긴 하나 긴급지원을 통해 복지관에서 직접 만나며 참여자들과 프로그램 활동하며 반기움과 설렘을 느끼게 되었다.
- 가정 내 지원 기간 동안 복지관 생활규칙이나 작업활동 순서를 잊지 않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려했던 것과 달리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있었다.

## 05 결과평가

- 일부 참여자를 우선 대상으로 긴급지원 프로그램 진행되었으나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가정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 가정 내 지원 시 보호자 대부분 참여자가 1-2시간 만이라도 갈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복지관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내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점, 외부활동이 전무한 참여자들에게 훈련의 기능 증진외에 참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어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어 부뒸하였다.





# 찾아가는 맞춤형 - 1인 평생교육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과정 운영 등 평생학습 특성화, 전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20년에는 청주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가정에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도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재가장애인이 독립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가족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간이 감소되므로 가족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고 장애인은 여가활동을 통해 자기가치감을 증진 시킬 수 있다.
- 이에 코로나 및 다양한 이유로 외부,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여가활동 제공을 통해 삶의 활력 증진 및 재활잠재력을 개발하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1인 평생교육을 진행하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1 참여자 모집

- 대상 : 여가 및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15명(발달장애인 제외)
- 폭넓은 참여자 모집 및 진행을 위해 관내 직원들의 추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도 신규 회원을 추천 받아 여가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당사자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지역 내 홍보를 진행하였고 운천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초기상담 진행과 함께 관내 회의를 통해 의뢰받은 세대를 참여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 2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의 가정에 강사와 담당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2주간 아로마테라피, 생활원에 활동을 각 2회기씩 총 4회기를 진행하였다.

**1회기:** 복지관, 담당자 및 강사 소개, 참여자 자기소개,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 안내, 바닷속 젤 캔들 만들기, 자기효능감 척도 검사(사전)



**2회기:** 아로마테라피와 감정오일 만들기, 프로그램 정리 및 다음 회기 진행일정 안내, 프로그램 종료 후 모니터링 진행



**3회기:** 강사 소개 및 참여자 자기소개, 생활 원에 프로그램 안내, 여러 가지 다육식물을 활용한 반려식물 꾸기



**4회기:** 식용 꽃을 이용한 샌드위치 만들기, 프로그램 정리 및 종료 후 모니터링 진행, 자기효능감 척도 검사(사후), 만족도 조사 진행



## 03 회원 소감

“평소에 꽃 냄새를 맡을 기회가 없었는데 다양한 향을 맡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프로그램 시간이나 회기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누군가 방문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게 즐거웠습니다.”

“강사님, 담당자가 열성으로 지도해주어서 재미있었고 덤으로 얻은 아로마 향초와 다육이도 잘 사용하겠습니다. 금화같은 수업이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요리 프로그램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 04 직원 소감

- 평소 장애로 인해 여가 및 외부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복지관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어려웠는데 직접 가정에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회원님들이 여가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가정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처음이라 낯설어 하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첫 회기를 참여한 후 강사, 담당 사회복지사의 다음 방문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 회원님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이전보다 밝아진 표정을 보면서 담당자로서 매우 뿌듯한 시간이었다.

## 05 결과평가

-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여가 및 외부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제외)에게 재활 및 정서적 지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상황 속에 참여자, 강사, 담당 사회복지사 소수의 인원으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함으로써 코로나의 위험성 감소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 각 4회기의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현하였다.
- 폭넓은 참여자 모집 및 진행을 위해 관내 직원들의 추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도 신규 회원을 추천 받아 여가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당사자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 즐거로운 집콕생활 2 탄

## 아동·청소년 1:1 온라인 놀이활동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학교 등교 중지 및 지역 사회 이용시설 재휴관에 따라 가정 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족의 정서지원을 위해 가정 놀이키트 “즐거로운 집콕생활” 2탄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 중 2가지 활동은 그룹활동 프로그램 대체 및 가정 내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1:1 온라인(비대면/줌)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가정 놀이키트 “즐거로운 집콕생활” 2탄의 경우 물품은 1탄과 동일하게 2020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용자 및 대기자를 대상으로 계획했으며, 연령 및 성별, 1탄 지원 시 아쉬웠던 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여 키트를 구성하였다. 또한 키트 대상자에게는 사전 유선연락을 통해 놀이키트 지원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내 진행하였고, 가정방문 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해 놀이키트 전달하였다.

1:1 온라인(비대면) 활동의 경우 9월 14일(월)~25일(금) 까지 한 사람당 20분 정도 진행되며, 제공된 가정 놀이키트 품목 중 2가지를 선정하여 네이버 밴드에 공지 후 댓글로 신청받았다. 이후 유선연락을 통해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일정을 조율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다.



### 03 회원 소감

“초등부 키트 아이가 보고 행복해하네요^^ 좋은 구성 짱짱입니다. 귀여운 에코백까지 감사합니다.”

▶ 장○현님 보호자

“처음 선택한 놀이키트네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완성품이 기다려지네요~ 아들 파이팅!!”

▶ 조○현님 보호자

“보내주신거 잘 받았어요~○철이랑 같이 강정 만들고 먹어봤어요! 같이 할 수 있어서 좋네요~”

▶ 신○철님 보호자

“○주는 페인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키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주님 보호자

“평소 갖고 싶어하던 블록을 선물받아 무척 좋아하며 바로 블록놀이를 하는 ○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김○정님 보호자

“온라인 활동 너무 좋은 기회라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도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 유○이님 보호자



### 04 직원 소감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학교 등교가 중지되고,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더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도 온라인 활동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부담감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지, 혹은 아이들이 화면을 보고 잘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놀이키트 2탄 지원 후 오롯이 가족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1:1 온라인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실행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실천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접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화면에 집중하지 못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끝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화면을 통해 잠시나마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점, 줌을 활용한 온라인 활동을 새롭게 진행해보았던 점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05 결과평가

가정 놀이키트 “즐거로운 집콕생활” 2탄의 경우 총 49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전달되었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활동사진 및 소감을 공유하고 있다. 놀이키트 1탄 지원 시 자녀 혼자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라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이번에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실제 소감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1:1 온라인 활동의 경우 8명(초등 5명, 중등 2명, 고등 1명)이 신청하였고, 보호자의 도움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 맞춤형 욕구에 따른 찾아가는 신청접수 '어디서든 만나요!'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이 나타나면서 본 복지관은 2월 24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

3월 개강 예정이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이후 진행 일정을 확정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지자체에서 '휴관 권고'가 내려오게 되었다. 이에 2월 방학특강 마지막 주, '2주 쉬고 3월에 프로그램 시간에 만나면 되겠네!'라며 손을 흔들고 귀가하신 회원분들과 그 이후로 복지관에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만 갔다.

회원님들이 집에 잘 계시는지 기본적인 방역물품은 잘 준비하고 있으신지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면, '언제쯤이면 복지관에서 만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죄송하게도 1~2월 추운 날에도 복지관에 오셔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며 꼭 수업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지관 휴관과 동시에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였다.

이후 모두의 '생활속 거리두기'를 통하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자 복지관에서는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복지관에 나오지 못한 회원들을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신청접수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면 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접수가 진행되었고,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혹은 복지관 이용이 처음이신 회원분들은 복지관 외부에서 상담·프로그램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회원님,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요?"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① 가정방문을 통한 프로그램 신청하기까지의 과정

- 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욕구를 보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진행과정·유의사항들을 전달
- ② 비대면 신청으로 인한 회원의 신체적인 능력 파악 및 행동관찰 등 회원과의 상담 어려움 발생
- ③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의 필요성 체감 - '회원님, 가정방문 해서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 드려도 될까요?'
- ④ 좋아 vs 싫어
- ⑤ 프로그램 리플렛과 신청서를 들고 개별 원하는 장소로 출발!

### ◆ 상담 내용 ◆

- 가. 기본정보 가족 사항, 장애 관련, 신체·건강, 학력 및 경력, 경제력, 사회환경, 강점
- 나. 욕구 사항 : 우울감 해소, 취업, 건강, 경제력 등
- 다. P/G 참여 욕구 : 보호자의 욕구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파악(자기결정에 의한 참여 지원)- 프로그램 리플렛을 통한 안내 후 신청서 접수, 관내 프로그램 외 관심 있는 평생학습 영역 조사.
- 라. 사회복지사 의견 : 상담 내용 및 관찰 행동들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의견정리

- ⑥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인하여 대상자 개별 가정방문 임시 중단! → 현재는 지자체의 권고사항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별 상담을 진행!

## ② 진행 과정 및 내용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프로그램 접수가 진행되다 중단되고, 또다시 진행되길 반복하면서 회원님들은 복지관에 가기만 하면 좋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동안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회원님의 평생교육 참여 욕구에 맞춰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리려고 해도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조건 듣고 싶다고 표현하시기도 하셨다. 더욱 보호자와 함께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보호자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표현하시는데 당사자와의 라포 형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자의 강력한 욕구 표현에 회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때에는 추가적인 전화 상담, 혹은 재방문의 재방문을 통해서 당사자의 프로그램 욕구를 확인하고 지원하려고 하였다. 또 이와는 반대로 복지관에 가고 싶다고 표현하여 가정방문을 진행하였는데, 정작 담당자 앞에서는 '복지관 안가!'라고 이야기하여 보호자와 담당자를 당황시키기도하였다.

### [욕구 조사 중 발달장애인 000 회원님 가정방문 사례]

- 부모님은 모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복지관에서 10시~16시까지 이용 희망
- 가정방문을 통하여 회원님의 현재 모습과 각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한 상황인지 상담 진행
- 기본정보 및 기본욕구, 참여 희망 프로그램 등 상담 진행 보호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000회원으로 인하여 가정내 양육의 어려움이였다.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외부로 내보내 보아도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았고, 그때 000회원이 복지관에 가고 싶다고 표현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신청
- 000회원은 외부활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뼈마디가 앙상하게 보일 지경이었으며, 처

음보았을 때보다 눈맞춤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

- 또한, 이전 이용했던 복지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보고 싶었던지 담당자의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건성 건성하던 모습을 보이다가, 궁금한거 모두 대답해 준다는 것에는 반응하며, 이전에 알고 지냈던 모든 인물들의 근황을 묻기 시작
- 이후 다시 '복지관에 오고싶었다면서요? 어떤거 해보고 싶었어요?'라고 묻자 다시 개개를 돌림
- 프로그램 리플렛도 보여줘봤지만, 밀어내길 여러차례 지금은 어떤 의사표현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 더 이상의 상담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 상담 종료
- 보호자와 함께 000회원님과 대화내용을 공유. 현재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기 보다는 이전 지인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현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복지관에 가고 싶은 이유는 본인이 복지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친구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닐까 의견을 나눔
- 000 회원님과 추가적인 대화 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리며 상담 종료
- 그러나, 지금도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4주가 지난 지금도 연락 전무



### 03 회원 소감

프로그램담당자와의 친밀감 형성 후 회원님들은 복지관에 갈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움이 큰 것인지 싱글벙글하며 담당자를 바라본다. 쑥스러워하며 제대로 말도 붙이지 못하지만 집으로 찾아와 살갑게 말도 걸어 주고 프로그램 설명도 해주는 것에 마냥 좋아한다.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나 표정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보호자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 졸업 후 바로 작업장에 다니느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한 번도 참여해 본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을 시작으로 잘 적응이 되면 더 많은 것을 해보도록 지지해 주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다.



### 04 직원 소감

찾아가는 맞춤형 욕구 조사를 진행하면서 보호자님들의 마음을 엿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회원님들이 많은 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거나, 집에 있기보다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려는 마음과 가정에서 회원님과 부딪치는 일을 줄여보려는 어머니 마음이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으로 이어짐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당자는 무리한 프로그램 선택으로 회원님들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이 염려되며 회원님의 욕구 파악

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전화접수가 아닌 대면 접수와 상담으로 회원님이 하고 싶은 영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고 본다.

1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회원님을 알 수 있고 회원님들 또한 담당자를 알고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본다.



### 05 결과평가

본인의 의지 없이 보호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뻔했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맞춤형 욕구 조사를 통하여 회원님의 선택이 우선시 되어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이 진행되었다고 본다. 장애인이라 선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호자의 안일한 생각이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님을 제자리걸음 하게 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발달장애인 회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해 줌으로써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으며 누구의 뜻이 아닌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성숙한 삶이 준비될 것이라 여겨진다.

#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사업 LED 전등 교체 및 전등 리모컨 지원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덕1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당사자가 살고있는 마을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지원하면 지역주민이 구심체가 되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세대 중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이 아닌 노화된 전등이 있는 세대 중심으로 LED 전등교체와 무선전등 리모컨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2020.04.01.(수)	내덕1동행정복지센터에 시영아파트 LED 전등 교체 사업 협조요청 공문발송
2020.04.09.(목)	시영아파트 장애인세대 인원 확인
2020.04.14.(화)	내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무님과 시영아파트 LED 지원에 대해 구체적 논의 (지원대상, 인원, 지원범위, 사업 추진 전략 등)
2020.04.24.(금)	내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온달커뮤니티 구성기관 협약 논의
2020.04.27.(월)	온달커뮤니티 협약식 공문 발송(내덕1동행정복지센터) 및 협약서, 현판 제작
2020.04.28.(화)	내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약식 체결 및 시영아파트 전등 교체 논의
2020.05.06.(수)	내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영아파트 통장님으로부터 전등 교체 대상자 18명 추천
2020.05.11.(월) ~ 05.12.(화)	시영아파트 추천자 상담 진행 (18건 중 14건 진행, 초기상담 10건 진행, 전등 교체 신청 접수 12건)
2020.05.14.(목)	대상자 통합사례회의 진행, 내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등 교체 일정조율 5/16(토) 비 예보로 5/20(수) 일정 변경 및 신청자에게 안내 전화 진행
2020.05.20(수)	시영아파트 12가정 전등 교체 완료 및 3차 네트워크 회의 진행
2020.05.15.(금) ~ 05.27(수)	상담 진행 중 위기가정 발굴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긴급지원비(2건), 복지관 후원 물품 지원(2건), 의료물품 지원(1건) 완료
2020.05.28(목)	시영아파트 12가정 중 노화된 전구 6개 추가 교체



### 03 회원 소감

- 지역 속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전등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 형성(생활서비스, 사회참여와 관계)과 동네에 있는 주민과 관계 맺기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주민들이 다른 세대를 추천하고 “저 집도 어려운데 한번 상담해보면 안 될까?”, “OO님 장애인세대는 아니지만 집에만 있고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 한번 가봐요?”, “저 분은 폐지를 주워서 힘들게 사시는데 어떻게 지원 안 될까?”라는 말씀들을 했고 이웃을 챙기시는 주민이 많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즐겁게 진행하였습니다.

- 방문상담과 전등 교체를 진행하면서 오랜 시간 아파트 단지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해주고 오늘도 왔네? 저 총각이 전등 교체해주는 사람이야! 등 복지관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교체된 전등을 보시고 너무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무선전등리모컨을 설치해서 밤에도 누워서 전등을 소등해서 너무 좋아요.

### 04 직원 소감

-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덕1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시영아파트 단지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지원까지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구심체가 되어 대상자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가정 내에서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 설치하고 나서 좋아하시는 당사자를 보면서 사회복지사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 05 결과평가

당사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39년 전 건축된 아파트로 노화 상태가 심하며 대상자 집에 방문했을 때 전등 상태가 낡고 고장난 전등을 발견하였다.

· 내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조로 파악된 장애인 가구가 46세대로 장애인 가구 비율 15.3%(46/300) 파악



· 마을에 있는 통장님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



· 시영아파트 추천자 18명 중 욕구가 있는 세대 14명 방문상담 진행



· 장애인 가구 12세대를 대상으로 LED 전등교체(30개)와 무선전등리모컨(12개) 지원



· 내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속적인 사례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를 통해 동료 지원체계 확보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

※ '마을 인연 잇기' 사업→장애인가구 파악(45가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LED전등 교체 및 무선 전등 리모컨 지원 → 신규 사례발굴 → 내외부자원 연계(한국사회복지관협회 긴급지원비 2가정 지원, 긴급물품 지원 2건(쌀, 라면), 장류주머니 구입비 지원) → 사례관리 가구 또는 서비스 연계 가구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홈 > 포토뉴스 > 충청포트

## 내덕1동사보협-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돌봄 협약

곽근만 기자 | shrek2114@hanmail.net

승인 2020.04.28 19:20:14



# 주민조직화사업 Local Tact 희망동행 덤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

## 01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

이웃간 서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 최근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하여 더욱 이웃간 거리는 멀어져 가는 상황이었다. 이웃간 신체적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만은 가깝게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상 주민조직화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지역 내 아파트단지로 찾아가 이웃과 함께 손쉬운 나눔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나눔실천에 참여하고, 이웃을 서로서로 살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조직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의 복지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조직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 02 진행 과정 및 내용

- 청주테크노폴리스푸르지오아파트와 2020. 09. 17. '희망동행' 협약 체결



- 'LocalTact 희망동행 협약기관 1호점' 현판 전달  
- 운영기간 : 1차(2020.09.17. ~ 2020.09.22.) / 2차(2020.10.06.~2020.10.20.)

- 아파트 입주인이 직접 기부에 참여(아파트 내 지정된 장소에 기부품을 기부)하고,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기부품을 모아 지역 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아파트이름으로 전달 예정



- 기부품목(사용하지 않은 세제품, 유통기한의 경우 3개월 이상 남은 제품)

- 간편식품 : 라면, 즉석밥, 김, 통조림, 레토르트식품, 아이들 과자 등
- 생필품 : 칫솔, 치약, 비누, 샴푸 등
- 부담없이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익명으로 기부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보도자료 발송을 통한 착한아파트 홍보
- 'LocalTact 희망동행 협약기관 1호점'을 시작으로 지역 내 다양한 아파트 및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우리마을을 만들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조직화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할 예정

### 청주테크노폴리스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과 함께하는 'LocalTact 희망동행'

이웃나눔 챌린지

따뜻한 우리마을 만들기 함께해요

운영기간	기부품목
· 1차 : 2020. 09. 17.(목) ~ 2020. 09. 22.(화)	가정에서 기호에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생필품 및 간편식품 (비누, 라면 등)을 기부해주세요 (유통기한 3개월 이상 남은 세제품)
· 2차 : 2020. 10. 06.(화) ~ 2020. 10. 20.(화)	
기부장소	기부품 활용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b>카페214.7</b> 기부품 보관함에 넣어주세요	기부품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기부 받아 우리마을 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전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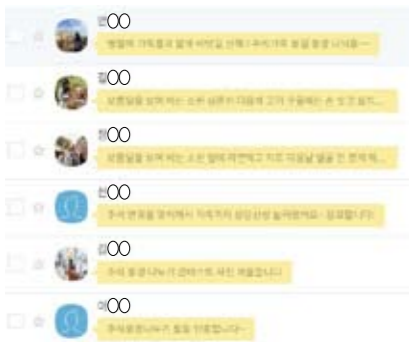


# 우리들의 이모저모



## 10월

추석 풍경 나누기 콘테스트  
20.10.01(목) ~ 10.07.(수)



온라인 한 줄 글쓰기  
"함께 나누는 마음 처방전"  
20.09.21(월) ~ 10.09(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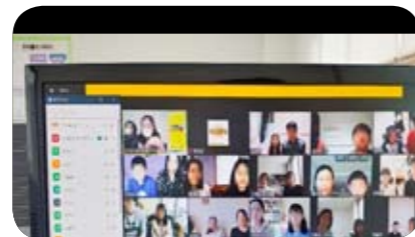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성인권교육(온라인)' 교육  
2020.10.20.(화) ~ 10.27(화)

우리동네 크리에이터  
20.10.05.(월) ~ 10.16(금)

평생학습 p/g 온라인 강좌 개강  
20.10.05(월) ~



장애인건강증진활동사업  
가족이 함께 하는 '독서 골든벨'  
20.10.31(토)



## 11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성인권교육(온라인)' 교육  
2020.11.03.(화) ~ 11.17(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특강 '감정코칭'  
2020.11.16.(월), 11.23(월)



가족과 함께 하는 놀토!  
(놀라운 토요일)  
2020.11.07.(토), 11.14(토), 11.28(토)



장애인건강증진활동사업  
"우리동네 걸음걸음"  
2020.11.09.(월) ~ 11.30(월)



## 12월

평생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전시회  
12월 중

# 코로나 -19 관련 복지관 모습

그린F방역 재능기부



복지관 전체 소독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책상 칸막이 설치



식당 배식대 칸막이 설치



코로나 19 대기장소 설치



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각 실별 방역물품 및 매뉴얼 배치







 **Careline**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행일 | 2020년 11월

발행인 | 이 순 희

발행처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 소 | 28455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51 (신봉동 500-2)

전 화 | 043-275-7411

팩 스 | 043-275-7410

홈페이지 | [www.cjbb.kr](http://www.cjbb.kr)

이 메 일 | [cj20141211@hanmail.net](mailto:cj20141211@hanmail.net)

편집위원 | 김보배, 박진주, 안현미, 길혜린